초등교육연구 제6집(2001. 5.) pp. 105~138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분석을 통한 제주도 마을의 구성실태와 형성배경[1)]

정 광 중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목 차

Ⅰ. 머리말
Ⅱ. 「한라장촉」에 대한 지리적 요소별 분석과 고지도로서의 특징
 1. 지리적 요소별 분석
 2. 고지도로서의 「한라장촉」의 특징
Ⅲ. 『탐라순력도』의 부분도면에 나타난 마을의 구성실태와 특징
 1. 읍내촌의 구성실태와 특징
 2. 읍외촌의 구성실태와 특징
Ⅳ. 「비양방록(飛揚放鹿)」상의 마을분포와 형성배경
Ⅴ. 맺음말

1) 본고는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편, 2000, 『탐라순력도연구논총』(pp.234~250)에 실렸던 "『耽羅巡歷圖』를 통해서 본 마을의 구성실태와 분포적 특성"에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한라장촉」의 분석내용을 추가하고, 후반부인 「마을」의 분석내용에 일부를 추가하여 새로 정리한 것이다.

Ⅰ. 머 리 말

지도는 지역공간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사회 등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과 활동의 결과가 각인된 그림이며 정보라 할 수 있다[2]. 그러므로, 지도는 「단순한 공간 표상의 도형이라는 정의를 초월하여 인간이 대상 공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인식한 결과로서의 집약적 도형」[3]이라 할 수 있다.

지도의 역사는 문자보다도 훨씬 빠르며, 인간의 정주생활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4]. 특히, 고지도나 회화식 지도[5]는 과거에 선인들이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인문적·자연적 환경은 물론 토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사를 이해하고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정보원(情報源)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환경과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과거의 특정 시대와 관련지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인 동시에, 선인들의 토지 활용과 지역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본고의 목적은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6]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고지도로서의 「한

---

2) 이찬·양보경, 「서울 고지도 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학연구』, 제3호, 1994, pp.1-39.
3) 서정철·김종섭, 『서양 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1991, p.9.
4) 양보경, 「제주의 고지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제11차 정기답사 발표자료, 1999, pp.10-15.
5) 본고에서 말하는 회화식 지도는 탐라순력도와 같이, 일정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리적 정보나 사실을 담은 회화나 화보 형식의 것을 말한다.
6) 『耽羅巡歷圖』는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에 제주병마수군절제사(濟州兵馬水軍節制使, 牧使겸임, 일반적으로는 '牧使'라고도 함)로 부임했던 병와 이형상(李衡祥)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서, 실제의 그림은 당시 제주목 화공으로 추정되는 김남길(金南吉)에 의해 그려졌다. '耽羅巡歷圖'를 직역하면, '탐라를 순력(지방관이 관내의 여러 고을과 군 주둔지(제주에는 진성(鎭城) 혹은 방호소(防護所))를 순시하며 민정을 파악하고 군기를 점검하는 행사)하면서 그린 그림'이란 뜻이다. 『탐라순력도』는 제1면에 등장하는 제주도 전도인 「한라장촉」외에 순력행사 장면 39면, 화기(畵記) 2면 등을 합해 모두 43면으로 만들어진 화첩이다.(이외에, 「호연금서(浩然琴書)」 1면이 있음) 이 화첩은 이형상 목사의 제서(題序) 일자가 계미년(癸未年) 죽취일(竹醉日)인 1703년 음력 5월 13일로 기록되어 있어, 대략 1703년 음력 5월 초순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선표, 「탐라순력도의 기록화적 의의」 『탐라순력』, 창간호, 2000, pp.74-79 : 이 찬,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地理學과 地理敎育』, 제9호, 1979, pp.1-12.). 『탐라순력도』는 원래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이형상 목사의 10대 손인 이수창씨가 다른 유물들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1999년 이후 제주시가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다. 아울러, 『탐라순력도』는 이형상 목사의 다른 유작들과 함께 보물 제625호(1979년 2월 8일 지정)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탐라순력도』는 1994년 9월에 제주시와 제주대학교박물관이 공동으로 원도면의 규모를 살리고 상세한 해설을 붙여 영인·제작한 바 있으며(고창석, 「탐라순력도와 병와 이형상(甁窩 李衡祥) 목사」 『탐라순력』, 창간호, 2000, pp.80-85), 1999년 9월에는 제주시가 재판을 발행하여 일반 시중에도 판매하고 있다. 본 고에서 사용한 『탐라순력도』는 1994년 9월에 제주대학교박물관이 편집하고 제주시가 발행한 영인본임을 밝혀 둔다.

라장촉(漢羅壯矚)」을 평가함과 동시에 18C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마을의 구성실태와 형성배경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데 있다.

마을은 가옥의 집합체로 형성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하면, 가옥들의 집합체인 공간적 범위는 가족 단위를 기본으로 하나의 공동체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의해 밝혀졌듯이, 제주도에도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고대인들이 거주해 왔으며[7], 기원전후에 이르러서는 삼양 및 월성 등 여기 저기에 집단적 공동체제를 이루며, 마을을 형성해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8]. 역사시대에 접어든 이후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 전역으로 마을이 형성되며 확산돼 나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확산되었고, 그 궁극적인 요인과 배경, 나아가 마을의 규모나 그에 따른 인구의 이동 및 정착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본고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18C초 제주도 마을의 구성실태나 분포적 특성이 오늘날 제주도의 마을형성 배경과 확산과정, 또는 인구규모에 따른 마을의 규모 등을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문지리학의 관점에서 인문현상의 요소들이라 함은 인간의 뇌(腦)의 자극을 통해 지표면에 나타나게 된 모든 것들을 총칭한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활에 적응하고 생산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모든 부류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근본으로 하는 인간 그 자체를 포함하여 주거지나 마을, 생산활동에 따른 농경지 및 부속시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장소와 대상, 사회규범과 제도, 전통 및 습관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8C초를 배경으로 마을의 구성실태와 분포적 특성, 그에 따른 형성배경에 대해 주로 시대적 배경과 생활 환경적 조건을 결부시켜 검토할 것이다.

---

7) 北齊州郡 ·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高山里遺蹟(圖版)』, 北濟州郡, 1998, p.51.

8)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三陽洞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1999, p.22. 삼양동 외에 월성 마을(용담 2동)에서도 1999년 11월 제주대학교박물관 팀에 의해 선사 주거지(기원전 100~200년 전경)가 발굴되었다. 제주시는 발굴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1년 3월 현재 선사 주거지를 일부 복원하였으며, 앞으로 선사마을 공원으로 정비한 후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시켜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이라 전해진다(한라일보, 2001년 1월 30일 화요일자 및 제주일보, 2001년 1월 31일 수요일자).

Ⅱ. 「한라장촉」에 대한 지리적 요소별 분석과 고지도로서의 특징

1. 지리적 요소별 분석

『탐라순력도』 41면 중 첫째 면은 「한라장촉」이라는 제목이 달린 제주도 전도(全圖)이다. 이 전도에는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리적 요소인 인문적·자연적 요소들을 문자, 기호 및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탐라순력도』의 41면 중 고지도로 평가되는 「한라장촉」을 토대로, 지리적 요소들을 추출한 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명기해 두고 싶은 점은 이하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고지도인 「한라장촉」에 표현된 지리적 요소를 기초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각 요소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는 가령 동일 저자인 이형상 목사의 지지서(地誌書) 『남환박물(南宦博物)』[9]의 내용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가령 「한라장촉」에 표기된 마을수를 포구 이름이나 읍성·진성 등의 이름을 제외한 수, 즉 마을 이름이 내륙쪽에 표기된 것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90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남환박물』에 설명된 130개(제주목 95, 정의현 23, 대정현 12)의 마을수와는 상당한 수적 차이를 보인다.

어디까지나, 필자의 의도는 고지도의 표현방법에 따라 당시의 지리적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한 장의 고지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양의 지리적 요소(지리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제주도의 지역성격을 논의하는 재료로 삼는데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사항은 「한라장촉」이 지니는 제주도 전체의 윤곽이다. 제주도의

---

9) 『南宦博物』은 『耽羅巡歷圖』의 저자인 이형상 목사가 서술한 지방지(地方誌) 중의 하나로, 제주목사를 이임(離任)하고 난 다음해인 숙종 30년(1704)에 그가 사용하던 호연정(浩然亭, 경북 영천 소재)에서 집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읍호(邑號), 노정(路程), 바다(誌海), 도서(誌島), 기후(誌候), 지리(誌地), 경승(誌勝), 사적(誌蹟), 성씨(誌姓), 인물(誌人) 등 37항목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8C초 제주도의 지리적 내용을 담은 지리학 개론서 혹은 지역지리서(地誌書)라 할 수 있다. 이 『남환박물』은 1994년 향토사가인 김봉옥 선생에 의해 번역되어 원문과 함께 『續耽羅錄』이란 책에 수록되어 있다(金奉玉編譯, 「南宦博物」 『續耽羅錄』, 濟州文化放送株式會社, 1994, pp.301-535). 18C초 제주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표 1〉『탐라순력도』「한라장촉」에 나타난 지리적 요소와 표현내용

요소 구분	요 소 명	표현방법	기재 수	공간(범위) 표현여부	색상 처리[f]	지리적 요소로서의 확인 가능 근거
인문적요소	읍성	문자·면	3	○	적색·흑색	문자·가호·채색
	진성	문자·면	10	○	〃	〃
	구 동해소	문자·면	1	○	〃	〃
	토성	문자·면	1	○	흑색	문자·기호
	연대	점	38	×	흑색	문자
	봉수대[a]	문자·점	25	×	흑색	문자·지형
	마을	문자	90[c]	×	흑색	문자
	포구	문자	79	×	흑색	문자·지형
	목장[b]	문자·선	22	○	바탕색	문자
	과원	문자	지명만으로는 정량적 파악이 곤란함.	×	흑색	지명으로 간접적인 파악만 가능.
	논	문자·면	1	○	바탕색·흑색	문자
	사적지(삼성혈)	문자·면	1	○	흑색·녹색	문자·기호
	연무정	문자	1	×	흑색	문자
	사직단	문자·면	1	○	바탕색·흑색	문자·기호
	경승지	문자·면	8	×	흑색·녹색	문자
	산악	문자·면	93	×	〃	문자·회화·채색
	하천	문자·면	13(15)[d]	○	흑색	기호
자연적요소	숲(삼림)	문자·회화	정량적 파악이 곤란함.	○	녹색·흑색	문자·회화·채색
	도서	문자·선	18 / 28~30[e]	×	녹색·흑색	문자·형태
	동굴	문자·선	1	×	흑색	문자
	분화구	문자	1	×	흑색	문자
	폭포	문자	2	×	흑색	문자

(a) 한라장촉에서는 '~망(望)'으로 표기되어 있음.
(b) 한라장촉에서는 '~소장(所場)' 혹은 '~장(場)'으로 표기되어 있음.
(c) 해안가 포구이름과 관련된 마을은 정확히 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륙쪽 마을지명에만 의존한 수치임.
(d) 괄호 속은 지류까지 포함한 수치임.
(e) 상단의 수치는 제주도의 부속 도서수, 하단의 수치는 반도부의 부속 도서수임. 외국 도서수는 지도의 제작상태와 관련,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f) 기호와 문자의 색상을 모두 포함함. (자료출처 : 『탐라순력도』「한라장촉」판독에 의해 필자 작성)

전체 지형 중 동서지역의 형태가 크게 왜곡된 점은 제작 당시 지리적 정보의 부족이라 할 수 있으나, 반도부 쪽에서 바라본 각도에서 제주도의 윤곽을 그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한라산 남쪽(정의현과 대정현) 지역이 많이 축소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점은 산악(오름)의 표현과 관련하여 더욱 왜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오름)군은 주로 한라산을 남쪽 지역으로 치우치며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저자(이형상 목사)의 지도제작 의도와 변방이라는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가 서로 맞물려, 일부의 지리적 요소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강조된 지리적 요소들을 지적하면, 포구의 위치와 관련되는 해안선, 산악(특히, 한라산 백록담, 성산일출봉, 산방산), 읍성·진성, 연대·봉수대, 목장, 그리고 주변 도서지역과 외국지역이다.

이어서 지리적 요소별로 분류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라장촉」에 표현된 문자나 기호 및 그림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적 요소(인문적 요소 및 자연적 요소)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여러 요소들 중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분류하였음을 밝혀 둔다.

〈표 1〉의 분류에 따라, 각 요소별로 수적 구성과 표현 정도를 18C의 행정구역인 3읍의 경계를 기준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위의 분류에 따르면, 「한라장촉」상에서는 크게 인문적 요소가 15개, 자연적 요소가 7개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읍성, 진성, 구동회소, 토성, 봉수대, 목장, 산악 등은 문자와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며 마을, 포구, 과원, 논 및 도서, 폭포 등은 기호가 아닌 각 요소별 명칭과 지명 또는 지형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읍성과 진성의 존재유무는 주변마을의 형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읍성은 규모면에서 볼 때, 제주읍성(제주목), 정의현성(정의현), 대정현성(대정현)의 순이 되며, 9개의 진성은 18C 중엽의 거주하는 군사수에 따라 많은 것부터 열거하면 별방진성, 명월진성, 화북진성, 조천진성, 모슬진성, 수산진성, 애월진성, 서귀진성, 차귀진성 순이 된다[10]. 특히 서귀진성의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진(鎭)의 위치('舊西'로 표기하고 있음)까지 표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토성은 고성 1

10) 군사수에 따른 제시순서는 1993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제주도지(제1권)』, pp.927-928에 제시된 〈표 4〉 조선후기 제주 방어시설 및 병력표 중에서 조방장, 만호, 만호수솔군, 치총, 성정군, 유직군의 수를 합산한 것이다.

리에 위치하는 항파두(리)성을 가리키며, 연대와 봉수대는 제주도의 해안을 돌아가며 구릉지나 오름을 이용하여 설치한 당시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서 연대는 38개소, 봉수대는 25개소가 있었다. 이들을 행정단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제주목에는 연대 18개소, 봉수대 10개소, 정의현에는 연대 11개소, 봉수대 10개소, 대정현에는 9개소 및 봉수대 5개소였다[11].

마을수는 단순히 내륙쪽의 마을 이름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 90개(제주목 69, 정의현 13, 대정현 8) 정도이지만(〈표 2〉), 17~18C 경에는 이미 해안가의 포구가 조성된 곳에도 많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라장촉」에 나타난 전체 마을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려면, 내륙쪽의 마을 이름수를 기본으로 하여 포구이름과 마을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일부의 포구, 또한 3읍성 내의 마을과 진성이

〈표 2〉『탐라순력도』「한라장촉」에 나타난 행정구역별 마을명과 마을수

구 분	마 을 명	마을수	비 고
제 주 목	下道衣, 上道衣, 細花, 坪代, 怪伊, 今勿屹, 橋來, 松堂, 先屹, 臥乎山, 大屹, 泉味, 孝友里, 每敦地, 細已刷, 道連坪, 無ホ乃, 夫叔, 居老, 加良, 別羅花, 仁多羅, 我羅好, 三義壤, 求好音, 巨馬路, 延老, 艮多時, 吾等生, 鋤已道, 伊生, 海安, 道內山, 吾羅好, 道好路, 多好, 延洞, 老兄, 月郎, 吾ホ弄, 大川外, 廣野, 坪代, 有信洞, 光令, 古城, 水淨, 今勿德, 流水岩, 貴日, 長田, 牛路, 水山, 加樂, 於音非, 夫面, 納邑, 皮文, 道內山, 立石, 召?貴林, 牛屯, 鎭近, 俠才, 大林, 黑岳村, 水流川, 堂旨, 造乎水	69	한라장촉 상에서 포구 이름과 마을 이름이 같은 경우(읍성 및 진성 이름 포함)에는 정확하게 마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포구를 나타내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마을수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포구에 인접하는 마을이나 혹은 포구 이름과 마을 이름이 동일했던 마을들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음.
정의현	首山, 臥岡, 花前, 弓山, 標立村, 細花, 衣貴, 水望, 夫ホ, 牛屯, 土坪, 洪爐, 好近磊	13	〃
대정현	羔屯, 石宋, 岳洞, 中文, 猊來, 紺山, 自丹里, 日果	8	〃
합계	-	90	-

(주 : 세 지역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음)
(자료출처 : 『탐라순력도』「한라장촉」 판독에 의해 작성)
(참고문헌 :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11)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pp.38-79.

위치한 부근의 마을을 합한 수가 당시의 전체 마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구는 '~포(浦)'라는 명칭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단지, 제주목의 협재(俠才, 현재의 한림읍 소재)와 대정현의 색수(塞水, 지금의 강정포)는 '포(浦)'자가 생략되어 있으나, 바닷가 쪽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점과 바로 옆에 비양도 및 관도(貫島)가 위치하는 관계로, '浦'자는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포구는 전체 80개가 확인되는데, 이 수치는 이형상 목사가 『남환박물』에서 지적한 79개와는 1개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만큼 변방으로서 제주도의 포구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포구수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목에 41개, 정의현에 20개, 대정현에는 19개로 제주목이 지역적인 범위가 넓은 관계로, 정의현이나 대정현보다 2배 이상 많은 포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장은 『탐라순력도』가 만들어진 170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존재하던 것과 당시의 것을 모두 합쳐 22개소가 확인된다. 이들 목장은 말과 소의 사육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당시 조정으로의 진상이 중요한 임무였던 관계로 말 사육용 목장이 수적으로 많았음은 물론, 면적상으로도 넓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과원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다. 『남환박물』에 등장하는 과원명과 「한라장촉」상의 마을 이름 및 포구 이름에 대비하여 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목 11개소(신촌, 조천관, 함덕, 고여지, 선흘, 북포, 김녕, 노형, 해안, 광령, 부면), 정의현 1개소(성산), 대정현 1개소(아악, ㅓ岳) 정도이다[12]. 논은 정의현 내의 대답(하논)이란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주도내의 농경지를 표현한 것은 이것이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사적지인 삼성혈은 지명과 기호를 모두를 사용할 정도로 당시로서도 중요시되었던 장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삼성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각형의 기호안에 3개의 구멍까지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환박물』에서는 사적지로 신화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승지는 오늘날에도 관광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대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주목의 취병(현재의 용연), 용두(용두암) 및 용생굴(현재의 만장굴), 정의현의 정

12) 『남환박물』에는 제주목, 정의현 및 대정현 모두를 합한 과원수가 42개소라고 적고 있다(金奉玉 編譯 「南宦博物」『前揭書』, p.342.)

방(정방폭포)과 성산(현재의 성산일출봉), 대정현의 천제담(천제연), 산방(산방산)과 송악(송악산) 등은 대상 명칭이나 지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연무정은 제주목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다. 『남환박물』에서는 '상시 군사를 열병하는 장소로서 남성밖 1리에 있으며 건물은 10칸'이라 명시함으로써, 그 규모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직단은 제주목의 연무정 바로 옆에 면적 공간으로 처리하여 '사직(社稷)'이라는 문자를 기재하고 있다. 『남환박물』에서는 양 현에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연적 요소 중 먼저 산악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주로 세 지역의 오름군을 말하는데, 자연적 요소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게 표현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산악(오름)은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전자가 약 79개, 후자가 약 13개로 총 92개 정도가 확인 가능하다. 최근에 제주도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368개로 집계되고 있는데[13], 이 수치와의 단순비교에서는 약 1/4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오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92개의 오름을 세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는 제주목 48개(오름명이 있는 것 40개, 오름명이 없는 것 8개), 정의현 28개(오름명이 있는 것 26개, 오름명이 없는 것 2개) 그리고 대정현 17개(오름명이 있는 것 14개, 오름명이 없는 것 3개)로 나타난다[14].

하천은 총 13개(제주목 6개, 정의현 3개, 대정현 4개)로 주로 남북상의 하천만이 나타나며, 지류까지 합한 숫자는 15개이다. 지명을 통해 정확한 하천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수정천(水淨川, 현재의 외도천, 도근천) 정도에 불과하나, 그 흐름의 방향으로 보아 제주목에는 화북천(별도천), 산지천(산저천), 병문천, 한천, 도근천, 금성천으로 보이며, 오늘날과 다른 점은 화북천을 산지천의 지류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현에서는 천미천(상류에는 지류를 표시하고 있음), 효돈천(상류부에는 지류를 표시하고 있음) 및 연외천(선반내)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대정현에서는 지금의 도순천(큰내, 강정천)과 악근천(아끈내, 족은내: 이 두 하천은 하류부에서 합쳐지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음), 중문천(베릿내)과 창고천을 나타내고 있다[15].

---

13) 제주도, 『제주의 오름』, 제주도, 1997, p.25.

14) 지역별 오름수는 중산간 지역 이상에서 3읍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름명이 없는 것 중의 일부는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오름으로 '~망(望)'으로 표시되어 있어, 현재의 오름명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오름명의 유무인 관계로, 오름명이 없는 부류에 포함시켰다.

15)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손인석의 논고(손인석, 「『耽羅巡歷圖』의 자연 환경(自然環境)」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 ·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pp.207-216)를 참고 할 것.

숲은 그림과 문자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동서 사면에 탁월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제주목의 동부에서는 와호산(臥乎山)—선흘—송당—함덕 마을로 이어지는 지역과 서부에서는 조호수(造乎水)—수류천(水流川) 마을로 이어지는 지역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저목수(楮木藪)', '간수(竿藪)' 및 '개마수(个馬藪)'라는 글자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닥나무 숲과 대나무 숲 등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현에서는 수산마을—두산봉—역돌포를 삼각형으로 잇는 지역에 현저하게 나타나며, 대정현에서는 창고천 주변지역과 자단리(自丹里) 마을—아악—고산을 잇는 지역에서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서는 크게 제주도 주변도서와 반도부의 부속도서, 외국의 도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로서는 제주목의 비양도·소화탈도(소관탈도)·대화탈도(대관탈도)·다래여(북촌리 앞바다의 다려도) 등 도서명이 표시된 것이 5개, 도서명이 없는 것이 1개(동복리 앞바다의 암초로 추정됨), 정의현의 부속도서로서는 우도·죽도(우도 동쪽의 비양도)·지귀도·삼도·의탈도·문도·초도의 7개로 모두 도서명이 표시되어 있다. 대정현의 경우는 개파도(盖波島, 현재의 가파도)·마라도·죽도(우두포 동쪽, 차귀도)·호도의 4개가 도서명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이외에 당산봉(고산리) 앞의 작은 섬 무산협(와도)이 보인다.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개파도(가파도)가 송악포와 모슬포 사이의 근해에 접근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부 부속도서는 건(乾) 방향의 흑산도(黑山島), 해(亥) 방향의 추자도(楸子島), 초도(草島), 초란도(草亂島), 독호도(獨戶島), 광대도(廣大島) 및 류도(琉島, 진도 ?), 임(壬) 방향의 외뢰도(外磊島)와 뇌입도(磊入島), 자(子) 방향의 백아지도(白阿只島)와 동서광아도(東西廣鵝島), 계(癸)방향의 자지도(者只島), 보길도(甫吉島), 소안도(所安島), 노도(露島) 및 현아지도(玄阿只島), 축(丑) 방향의 사서도(斜鼠島), 청산도(靑山島), 완도(莞島), 신지도(新支島) 및 고금도(古今島), 간(艮) 방향의 여서도(餘鼠島), 삼도(三島) 및 일부 도서 등 모두 28~30여 개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당시의 정확한 지명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우도 옆을(乙) 방향에 섬이 한 개 보이나, 외국인지 반도부에 소속된 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16].

---

16) 부분도인 「우도점마(牛島點馬)」에는 우도 뒤편의 섬 2개가 그려져 있는데, 작은 섬은 죽도(竹島)이고, 비교적 크게 보이는 섬은 동여서(東餘鼠)라 적혀있다. 그런데 이 동여서도가 「한라장촉」에서 우도 옆의 큰 섬(을(乙) 방향)과 동일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한라장촉」 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섬 안쪽에는 두 개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중 앞의 글자는 정확히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

외국지역의 도서는 일본열도를 비롯하여, 일기도(一岐島, 일본의 이키섬), 류구도(琉球島, 일본의 오키나와섬), 소류도(小琉島, 류큐 열도의 한 섬) 등이 보이고, 그 외 인근 국가인 여인국(女人國: 여인들만 산다는 전설 속의 섬), 안남국(安南國: 베트남), 섬라국(暹羅國: 태국)과 중국 대륙의 일부인 영파(寧波, 닝보), 소항주(蘇杭州: 쓰저우, 항저우), 양주(楊州: 양저우), 청주(淸州) 등이 나타난다[17].

끝으로 동굴과 폭포는 각 2개, 분화구는 1개가 나타나는데, 동굴은 김녕리의 용생굴(龍生窟, 만장굴)과 사라봉[18] 밑이 구룡굴(龜龍窟, 현재의 고래굴)이며, 분화구는 한라산정 부근의 백록담(白鹿潭)이라는 문자를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폭포는 서귀진(西歸鎭), 남쪽의 정방(正方)과 천제담이라는 문자로부터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라장촉」상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여러 행사의 장면을 그린 부분도면 중 「성산관일(城山觀日)」, 「우도점마(牛島點馬)」, 「별방시사(別防試射)」에서는 우도의 어룡굴(魚龍窟)이 보이며, 「산방배작(山房盃酌)」에서는 산방굴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우도의 어룡굴은 현재 '콧구멍(동안경굴, 東岸鯨窟)'이라고 불리는 해식동굴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 이르러 동굴 음악회가 열리는 곳으로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다.

폭포의 경우는 부분도인 「정방탐승(正方探勝)」에서 정방폭포를, 「천연사후(天淵射帿)」와 「서귀조점(西歸操點)」에서는 천지연 폭포를, 「현폭사후(懸瀑射帿)」에서는 천제연 폭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한라장촉」내에서는 천지연 폭포가 생략되고 있다.

며, 뒤의 글자는 거의 마(馬)자와 흡사하다. 그리고 섬 자체가 반쯤 잘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뒷부분(「한라장촉」상의 좌측)에 글자가 더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라장촉」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섬은 반도부에 소속된 도서라기보다는 외국의 도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발행된 시기는 다소 다르나, 1750년대 경의 「해동지도」중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1750년경 제작,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채색 필사본, 2종 중 1종, 비교적 제주도의 윤곽이나 지형의 묘사가 부정확한 쪽의 지도)에는 비슷한 위치의 섬을 '대마도(對馬島)'로 표시하고 있다. 만약에, 앞서 지적한 판독 불가능한 한자가 '對'자라고 한다면, 대마도(일본명 : 쓰시마)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외국의 도서라는 추측은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방향적으로 보아도 현재의 쓰시마의 위치와 비슷하다. 아울러, 「우도점마(牛島點馬)」에서의 죽도 외의 섬 '동여서(東餘嶼)'는 그 크기나 형태 혹은 문자를 근거로 할 때, 「한라장촉」내의 문제의 섬으로는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7) 이외에 한자로 표기된 외국도서(곤(坤) 방향)가 한 개 있으나,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18) 정확하게는 별도봉 밑이다.

2. 고지도로서의 「한라장촉」의 특징

이상과 같이 「한라장촉」을 통해 지리적 요소를 인문적·자연적 요소로 구분하여 추출함과 동시에, 지도상에서의 수적 구성이나 표현정도를 검토해 보았다(〈표 1〉).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도의 표현기법에서 보았을 때 인문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들은 현대지도와 고지도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문자(지명 및 지형지물의 명칭)가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록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기호(면기호, 선기호, 점기호)도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도서지방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부각되는 해안선이나 부속도서 등이 지형적 특징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고지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회화식 표현기법은 산악과 삼림(숲)의 분포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근거가 되고 있다. 회화식 표현기법은 고지도나 회화식 지도에서는 거의 정형화된 수법이라 할 수 있지만, 삼림(숲)의 표현과 같이 분포의 범위를 나타내는 기능에서는 결코 현대지도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산악의 표현과 같이 생동감과 웅장함을 나타내는 기능에서는 오히려 뛰어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둘째로, 지리적 요소 중 지역적 혹은 공간적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문적 요소 중에서는 읍성, 진성, 토성 및 목장이, 자연적 요소에서는 산악(오름), 숲, 하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리적 요소는 정확한 면적 실태의 파악에는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대략적인 범위를 추정하거나 지리적 요소간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거론돼야 할 요소 중의 하나가 '도로'이다. 현대지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도로'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지방수령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육지부로부터의 접근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 형상 목사 나름대로의 의도가 분명히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제주도를 반도부에서 바라본 각도에서 그림으로써, 현대지도와는 남북 방위를 상반되게 그린 점이나, 24방위를 사용하여 제주지역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국내외 도서지역을 부각시킨 점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변방에 위치하는 제주도의 경우는 '도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목장, 과원, 방어시설 및 산천 등이 지도표현 상에서는 훨씬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한라장촉」 하단에 기재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도로'를 지도상에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하단에 문자로서 '대로(大路)의 둘레 378리'라 적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19].

셋째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체적으로 읍성·진성, 연대·봉수대, 목장, 마을, 포구, 산악, 숲(삼림), 하천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반하여, 과원과 동굴 및 폭포 등은 한정된 지면상에서 표현 공간의 협소함과 더불어 군사적·행정적 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요소들에게 밀린 나머지,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도 『탐라순력도』자체가 국가의 심부름꾼이라는 입장에서 제작되었음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로, 마을과 포구의 경우는 문자와 지형적 특징을 토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그 위치는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마을이나 포구의 이름을 대비하는 데에는 훌륭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시된 마을 이름이 자연취락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하위 행정(단위)취락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며, 포구의 경우도 해안변에 위치한 취락을 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포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표 2〉 및 〈표 3〉참조). 따라서, 마을과 포구의 규모나 기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르는 문제점도 있다.

Ⅲ. 『탐라순력도』의 부분도면에 나타난 마을의 구성실태와 특징

본 장에서는 「한라장촉」이외의 40개 부분도면에 나타난 마을을 중심으로 당시의 마을의 구성실태와 성격 및 특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 이유는 Ⅳ장에서 논의할 마을의 형성과정과 형성배경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19) 이외에도 제주도에 대해 전체 둘레 480리, 동서 길이 170리, 남북 길이 73리로 적어 놓은 점이나, 육지 혹은 외국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서, 해남 970리, 일본국 2,000여 리, 여인국 8,000여 리, 유구국 5,000여 리, 안남국 17,000여 리, 섬라국 점성 10,000여 리, 중국 영파부 8,000리, 소주와 항주 7,000여 리, 양주 7,000리 산둥성 10,000여 리, 청주 10,000여 리라는 내용을 기록한 점에서도, 제주도에의 접근도적 측면을 상당히 중요시하여 「한라장촉」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한라장촉」을 제외한 40개의 부분도면(순력행사 장면) 중 마을과 포구가 나타난 28개의 도면을 선택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라장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을과 포구[20]들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주변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점은 순력행사에 따른 관방시설과 군사들의 훈련실태에 대한 점검, 목장과 말의 방목실태의 점검 혹은 이형상 자신의 치적 등을 정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지(순력지)의 상황이 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한라장촉」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모습들, 즉 당시의 방어시설과 포구주변의 해안 마을의 실태, 목장과 목마를 중심으로 한 중산간 마을의 분포와 확산 정도, 민가의 밀집상태, 또는 포구의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 이용현황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28개의 부분도면을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마을의 분포 실태에서는 크게 읍내촌(邑內村)[21]과 읍외촌(邑外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읍내촌과 읍외촌은 기본적으로 1목 2현이라는 행정체제 속에서 성내(城內)와 성외(城外)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성(城)은 기본적으로 방어와 통치의 기능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의 주거지를 선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남환박물』에 나타난 아래의 기록은 당시의 읍내촌과 읍외촌의 구성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제주는 산북에 있다. 읍내는 3리(里)이고, 동면은 34리, 서면은 53리, 남면은 5리로, 합하여 95리이고, 연호(煙戶)는 7,319호이다. 정의는 산 왼편의 동쪽에 있는데, 읍내는 1리이고, 동면은 10리, 서면은 12리로 합계 22(23 ?)[22]리에 연호(煙戶)는 1,436호이다. 대정은 산 오른편의 서쪽에 있다. 읍내는 1리이고, 동면은 9리, 서

---

20) 부분도면(순력행사 장면) 상의 마을명과 포구명 중에는 일부가 한라장촉과는 다른 한자로 표기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마을명 중 造乎勿(부분도면)—今乎水(한라장촉), 吾照浦(부분도면)—五照浦(한라장촉)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21) 읍내촌(邑內村)이란 용어는 지리학적 학술 용어로서는 적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읍성촌(邑城村)' 혹은 '읍취락(邑聚落)'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읍외촌(邑外村)'이라는 용어가 여러 부분도면 상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읍외촌'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22) 김봉옥 선생이 인용하여 번역한 책(주 23) 참조)에서는 정의현의 마을(里) 합계가 22리(한글 p.313, 한문 p.442)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 합산하면 23개 마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점은 김봉옥 선생이 원문에서 인용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원저자(이형상 목사)의 합산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본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병와전서』에 실린 『남환박물』의 진본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또한, 위의 번역 내용 중 대정현의 서쪽면의 마을 수도 한글 번역문

면은 2리로, 합계 12리에 연호(煙戶)는 797호이다."〈「南宦博物」『耽 耽羅錄』, 六 誌地條, p.313, p.442〉[23]

1. 읍내촌의 구성실태와 특징

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읍내촌은 3읍을 합하여 5개 마을로 구성된다. 제주목의 읍내촌에 대한 정확한 마을 이름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완전한 면리제(面里制)가 성립된 이후의 기록인 『제주읍지』(1780년~1789년: 정조 연간)에는 1도(一徒), 2도(二徒), 3도(三徒)로 구분되어 나타난다[24]. 따라서, 탐라순력도의 작성시기인 18C 초기와는 시간적 차이에 따른 인구와 가구(호)수가 크게 다르다 할지라도, 대략 제주읍성 안에서는 크게 3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발전돼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읍성안에서는 어느 지구에 민가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었을까. 이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표 3〉에 제시한 『탐라순력도』 부분도면 중 정의현의 읍내촌은 「정의조점」, 「정의양노」, 「정의강사」, 대정현의 읍내촌은 「대정조점」, 「대정배전」, 「대정양노」, 「대정강사」, 제주목의 읍내촌은 「제주전최」와 「건포배은」이다.

정의현의 읍내촌(〈표 3〉-9, 10, 11번)은 전술한 3개의 부분도면 상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북쪽에는 관아건물과 부속건물들이 자리잡고 있고, 동문쪽에는 창고건물들이 위치하는 관계로 일반 민가들은 주로 중앙부나 남문 및 서문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동문쪽이나 관아건물들이 위치하는 북쪽지구에도 민가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옥의 밀집정도는 미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의현의 읍내촌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제주읍지』에는 '읍성(邑城)'이라 하고 165호에 872명(남자: 401명, 여자: 471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나, 여기서의 읍성이 성(城)을 중심으로 한 읍내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익태의 저서인 『지영록』(1696년)에는 '읍성안에 민가가 100호 미만'(1694년 9월 순력때의 수치)이라 적고 있어서[25], 시간적 전후에 따른 읍내촌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정현의 읍내촌(〈표 3〉-15, 16, 17, 18번)은 상기의 부분도면에서는 민가의 표현

에는 3리(p.313)로 되어 있으나, 인용한 한문에는 2리(p.442)로 기재되어 있다. 이 점도 본고의 집필 단계에서는 번역자와 원저자 사이의 잘잘못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대정현의 경우는 인용한 한문을 중요시하여 2리로, 정의현의 경우는 원저자의 계산착오로 가정하여 일단 23개로 수정하여 재인용하였다.

23) 金奉玉 編譯「南宦博物」『前揭書』, p.313, p.442.

24) 김동전,「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구조와 지배체제」『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pp.45-69.

25) 李益洙 譯, 『知瀛錄』(李益泰 著, 1696年), 濟州文化院, 1997, p.21.

이 구체적이지 못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략 동문주변 지구에 민가가 밀집된 상태를 보인다. 더욱이 읍외촌이 동문밖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읍내촌은 동문주변 지구를 중심으로 먼저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당시로서는 동문주변 지구에 민가들이 많이 밀집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09년에 제작된 「탐라지도」에는 서문주변의 마을을 '읍촌(邑村)'이라 지적하고 있어서, 서문쪽에도 민가들이 들어서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성안과 성밖의 구분이나 민가의 분포정도는 불분명하다. 대정현의 경우는 관아건물이 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서문쪽에는 창고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지영록』에서는 '성안에는 관사(官舍)가 10여 호뿐이고, 민가는 성밖의 동서쪽에 겨우 40~50호이고…(이하 생략)'라는 기록[26]으로 보아 전체적인 읍내촌의 형성은 정의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늦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읍지』에서 대정현 읍내촌과 관련되는 내용을 추적해 보면, 동성(東城)과 서성(西城)의 2개 마을이 나타나며, 동성에는 123호에 595호(남자: 253명, 여자: 342명), 서성에는 95호에 394명(남자: 169명, 여자: 225명)이라 적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성과 서성이 완전하게 성안쪽의 마을만을 의미하는 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동문과 서문부근을 기본 축으로 하여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하였음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제주목의 읍내촌(〈표 3〉-24, 26번)인 1도, 2도, 3도 마을은 제주목의 행정·통치

〈표 3〉 『탐라순력도』중 28개의 부분도면(순력행사 장면)에 나타난 마을과 포구

번호	부분도면명	마 을 명	포 구 명	비 고
1	산장구마(山場驅馬)	橘來里	—	—
2	성산관일(城山觀日)	—	前浦, 五照浦, 渭陽	—
3	성산관일(城山觀日)	—	浦	—
4	화북성조(禾北城操)	別刀浦里	前浦	—
5	조천조점(朝天操點)	朝天館里	別刀浦	—
6	별방조점(別防操點)	下道衣灘里	館浦	—
7	별방시사(別防試射)	下道衣灘里	別防浦, 龍項浦	—
8	수산성조(首山城操)	—	別防浦, 龍項浦	—
9	정의조점(旌義操點)	邑內村, 邑外村, 弓山村	五照浦, 俠才浦	읍내촌은 정의현성 안에 형성된 마을을 말함.
10	정의양노(旌義養老)	邑內村, 邑外村	—	〃

26) 李益洙 譯, 『前揭書』, p.25.

번호	부분도면명	마 을 명	포 구 명	비 고
11	정의강사(旌義講射)	—	—	〃
12	서귀조점(西歸操點)	西歸浦	西歸浦	—
13	고원방고(羔園訪古)	—	—	—
14	산방배작(山防盃酌)	黑路浦	黑路浦	—
15	대정조점(大靜操點)	—	—	읍내촌은 대정현성 안에 형성된 마을을 말함.
16	대정배전(大靜拜箋)	—	—	〃
17	대정양노(大靜養老)	—	—	〃
18	대정강사(大靜講射)	—	—	〃
19	모슬점부(摹瑟點簿)	摹瑟浦, 行漁浦	摹瑟浦, 行漁浦	—
20	차귀점부(遮歸點簿)	蛇鬼浦, 瓦浦	蛇鬼浦, 瓦浦	—
21	명월조점(明月操點)	水流川村, 俠才村, 獨浦村, 牛屯村	獨浦, 俠才浦	—
22	명월시사(明月試射)	水流川村, 俠才村, 獨浦村, 牛屯村	獨浦, 俠才浦	마을명과 포구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명월조점의 그림을 통해 확인 가능.
23	애월조점(涯月操點)	涯月里, 高內里 외 1개 마을	涯月浦	—
24	제주전최(濟州殿最)	邑內村	—	읍내촌은 제주목의 성안에 형성된 마을을 말함.
25	병담범주(屛潭泛舟)	大川外里, 伐郎村외 1개 마을	大瀆浦, 伐郎浦	—
26	건포배은(巾浦拜恩)	邑內村, 健入浦村, 伐郎村 외 약 17개의 읍외촌 마을	健入浦, 伐郎浦	약 20개 마을이 보이나, 정확한 마을명의 기재는 없음.
27	비양방록(飛揚放鹿)	吾羅好, 海安, 坪代, 水山, 納邑, 今勿德, 夫面, 牛屯, 堂旨 등 약 47개의 읍외촌 마을	大瀆浦, 都近川浦, 嚴莊浦, 涯月浦, 潛水浦, 俠才浦 등 18개의 포구	제주목 서면의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28	호연금서(浩然琴書)	—	所伊浦, 別刀浦, 古老浦	민가 표시는 없음.

(1)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주거지인 초가나 포구가 보이지 않은 부분도면은 선택하지 않았음.

(2) 부분도면 상에 마을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민가가 보이는 경우는 비고란에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는 한, 필자가 임의적으로 읍명이나 포구명을 따서 마을 이름으로 삼았음.

(3) 각 부분도면 상에 지형적으로는 포구가 나타나 있으나, 포구 이름이 없는 것은 한라장촉의 포구 이름을 사용하였음. (자료출처 : 『탐라순력도』「한라장촉」 판독에 의해 작성).

중심지인 관덕정 부근을 중심으로 동쪽지구가 1도 마을이고, 서쪽지구가 3도 마을이며, 대략 가운데가 2도 마을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읍내촌의 공간구조는 관덕정을 비롯한 관아건물과 주요 부속시설들이 주로 북서쪽을 점하고, 그 외의 문묘, 향교, 사당 건물들이 동·서·남쪽의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이들 건물들을 기점으로 읍성 내의 민가들은 동문, 서문, 남문의 세 방향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제주목의 읍성 규모는 정의현과 대정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인구의 성장 속도와 더불어 민가의 밀집도도 역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형적인 조건으로 보아도 제주목의 성내 지역은 해발 50m 미만의 평지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배경으로 산지천의 하천수나 해안가 용천수의 활용 등, 인구의 증가나 민가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내에서는 관아건물이나 주요 부속건물[27] 등을 주축으로 하여 도로망(道路網)도 발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도로의 기본 축은 지금의 관덕로(현재의 관덕정 앞~동문시장 앞까지)와 중앙로(중앙로터리~남문로터리 부근)가 서로 교차하는 T자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의 도로들은 이 T자형 도로에서 민가의 밀집지구나 공공적 기능을 띠는 각종 건물지, 또는 농경지와 샘 등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장소와의 연결을 전제로, 샛길처럼 뻗어 나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적인 도시형태와는 상이하게 다르지만, 근세에 보는 도시적 성격도 다소 엿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제주전최」 및 「건포배은」의 부분도면에서는 동문인 제중루(濟衆樓), 서문인 백호루(白虎樓), 남문인 정원루(定遠樓) 부근의 민가 분포실태와 함께 관덕정(觀德亭), 우연당(友蓮堂), 영청(營廳), 상아(上衙), 망경루(望京樓), 애매헌(愛梅軒), 군관청(軍官廳), 마방(馬房), 군기고(軍器庫), 목작청(牧作廳) 등 주요 관아건물들의 배치상태, 나아가 전술한 문루와 산지천의 수구인 공신루(拱辰樓: 虹門(아치형 문), 즉 북수구임), 남수구(虹門)의 위치나 형태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2개의 부분도면을 참고로 하면, 민가들의 분포 상태는 특히 관아건물의 배후지인

---

27) 「南宦博物」(誌廨條)(金奉玉 編譯 『前揭書』, pp.356-357) 및 김동전의 연구(1991, 「전게 논문」, pp.53-54)에 의하면, 주요 관아시설은 영주관(瀛主館, 35칸), 관덕정(觀德亭, 18칸), 상아(上衙, 37칸), 망경루(望京樓, 17칸), 군관청(軍官廳, 31칸), 영청(營廳, 30칸), 향교(鄕校, 71칸) 등 모두 50여 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남문부근 즉 서원과 군관청 주변지구과 북수구와 남수구 사이 즉 문묘와 객관 주변지구에 탁월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동문 방향(산지천 안쪽)과 남문지역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가들의 분포정도는 조밀한 상태로 나타나며, 반면에 서문방향과 북쪽 지구는 관덕정을 비롯한 주요 관아건물들이 점거함으로 인해 민가들이 들어설 공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산지천 밖의 동쪽지구에도 지형적 조건 등으로 민가가 거의 들어설 수 없어, 당시로서는 성안에서도 민가의 분포가 특정지역에 치우쳐 밀집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어떻든, 순력행사를 전제로 한 부분도면의 내용을 그대로 신용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당시의 1도, 2도 및 3도 마을에 대한 행정적 범위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그에 따른 인구분포나 민가의 분포 정도를 추적한다는 것은 난해할 수밖에 없다. 다소, 시간적인 격차가 나타나지만 『제주읍지』의 내용은 그나마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제주읍지』의 기록에 따르면, 1도는 351호에 1,890명(남자: 838명, 여자: 1,052명), 2도는 282호에 1,466명(남자: 624명, 여자: 842명), 3도가 337호에 1,670명(남자: 616명, 여자: 1,054명)으로, 제주목의 읍내촌인 1도, 2도, 3도에는 전체 970호에 5,026명(남자: 2,078, 여자: 2,94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읍외촌의 구성실태와 특징

한편, 읍외촌은 당시 행정과 통치의 절대적 기능을 담당했던 3개의 읍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읍성밖에 위치하는 마을들이다. 이들 읍외촌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당시 읍외촌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제주목 69개, 정의현 13개, 대정현 8개인 총 90개로 한정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 마을수는 『남환박물』에서 지적한 130개의 마을 중 읍내촌 5개 마을을 제외한 마을수, 즉 제주목 92개, 정의현 23개, 대정현 12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점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포구 이름만으로는 전부가 해안가에 위치하는 독립된 마을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많은 마을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라장촉」상에 제시된 80개의 포구를 3읍별로 합산하여 마을수를 계산한다면, 제주목이 110개

(〈표 2〉의 마을수69+포구수 41), 정의현이 33개(〈표 2〉의 마을수 13+포구수 20), 대정현이 27개〈표 2〉의 마을수 8+포구수 19)로 전체수는 170개가 된다. 따라서, 마을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포구 40여 개를 간추려 내야만 『남환박물』에서의 수치와 같아질 수 있다.

당시의 마을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수치적 파악에 대한 논의는 이쯤에서 일단락 맺기로 한다. 그 이유는 마을의 개념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그 수는 달라질 수도 있으며, 더욱이 『남환박물』에 제시한 130개 마을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들 전체의 마을 이름과 위치를 대비시켜 파악하기는 여러 모로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읍외촌의 구성실태와 분포적 특성, 아울러 마을별 성격과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3〉의 부분도면 상에서 읍외촌 마을을 민가의 분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3개의 도면이다. 그리고 23개의 부분도면 중에서는 「비양방록」에 46~50개, 「건포배은」에 약 16개 순으로, 많은 읍외촌 마을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21개의 부분도면 상에서는 관방시설과 목마장 혹은 경승지 주변지역과 관련되는 마을들이 1~3개 정도가 표현되어 있다.

23개 부분도면 상에 나타난 전체 읍외촌 마을수는 여러 도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건포배은」과 같이 마을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일이 대조하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복된 마을을 제외하면, 대략 80여 개로 추산할 수 있다. 읍외촌에 대한 구성실태와 특징에 대해서는 23개의 부분도명 중에서도 마을의 성격과 지리적인 특성이 돋보인 것에 한정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읍외촌 마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해 주고 있는 부분도면은 교래리가 중심이 된 「산장구마」(〈표 3〉-1번) 도면이다. 산장에서 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그 수를 점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에서[28], 교래리는 말의 방목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는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결책군 2,602명, 구마군 3,720명, 목자 및 보인[29] 214명이라는 인원수나 객사 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교래리 주변지역은 거대한 목장을 경영하는데 안성마춤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주변에 제동목장이나 대원목장들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위치하는 사실은 과거로부

28) 김동전, 「탐라순력도 그림 해설」(산장구마), 『탐라순력도』(李衡祥 著, 金南吉 그림),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편집), 1994, p.28.
29) 여러 용어에 대한 해설은 제주시에서 발행한 전게서 「탐라순력도 그림 해설」편을 참조할 것.

터 이어진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장에서 제시한 마을의 분류기준에 따르자면, 교래리는 해발 400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하는 산간마을에 속한다. 따라서 주변의 오름군과 산림을 유효 적절히 활용한 사장(蛇場)과 원장(圓場) 등은 주목할 만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부분도면 상에서는 교래리의 민가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만약에 이들이 3개의 작은 자연마을이었다면, 현재의 교래리의 상동(남쪽, 부분도면 상에서는 윗쪽)과 하동(북쪽, 부분도면 상에서는 아래쪽) 마을을 이루는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제주도지』에 의하면 교래리는 약 700여 년 전에 설촌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일정 시점까지도 웃ᄃᆞ리, 샛ᄃᆞ리, 알ᄃᆞ리라는 3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30]. 『제주읍지』에서 교래리(좌면에 소속)는 86호에 372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규모는 호수(戶數)에서는 평균치인 76호를 초과하며, 인구수에서는 평균치인 437명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31].

「화북성조」(〈표 3〉-4번)에는 화북진성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화북 마을(화북 1동) 모습이 상세하다. 화북진성 바로 남쪽에 '별도포리'라는 마을 이름이 선명하다. 민가의 분포는 동쪽의 별도연대와 서쪽의 별도포구가 끝나는 지점까지 비교적 골고루 퍼져 있으나, 특히 연대서쪽과 화북진성의 동문지점, 그리고 별도포(현재 화북포)의 안쪽 가장자리를 에워싸는 부근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별도포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제주도의 관문적 성격을 띠던 포구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에 의하면, 마을의 형성시기는 약 300~500여 년 전이라는 견해[32]와 더욱 오랜 시기로서 고려 충렬왕 26년경 (13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견해[33]가 있다. 그리고 최초에는 오씨, 현씨 및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설촌했거나 혹은 주변지역에서 현재의 별도포 방면으로 풍부한 식수와 해산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주해 온 것이라 전해진다[34].

별도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포구를 축성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제주목 내의 여러 읍외촌 중에서는 지리적인 위치도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로 이·부임하는 목사나 판관들이 별도포를 이용

30) 오성찬, 「인구와 취락 : 시·군·읍·면의 유래」 『제주도지』(제1권), 제주도, 1993, p.577.
31) 『제주읍지』(1780-1789년)에는 마을수가 139개, 총 호수가 10,500호, 총 인구수는 60,803명(남자: 26,431명, 여자: 34,372명)으로 나타난다.
32) 한림화·문무병·오태현·오성찬, 『유서깊은 옛 포구 화북리』('제주의 마을' 시리즈 ⑨), 도서출판 반석, 1989, pp.43-44.
33) 화북동운영위원회 편, 『화북동 향토지』, 화북동운영위원회, 1991, p.27.
34) 한림화·문무병·오태현·오성찬, 『전게서』, p.43.

하여 드나들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증거는 현재 화북포로 향하는 도로 한쪽(속칭 비석거리, 화북 1동 화북 펌프장 남쪽 약 50m 지점)의 비석군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화북성조」에서도 비각을 보관하는 건물 등 몇 채의 와가(瓦家)가 보이고 있음은 별도포 마을이 유서 깊은 마을임을 입증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그 당시는 일부의 관아건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초가집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읍외촌의 와가 건물은 대부분이 중요한 기능을 띠고 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별방조점」(〈표 3〉-6번)과 「별방시사」(〈표 3〉-7번)에서는 하도의탄리(下道衣灘里)의 마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별방이나 하도의탄리는 지금의 하도리를 일컫는 지명이다. 별방이란 지명은 중종 5(1510년)년에 제주목 동쪽의 김녕방호소를 외구 및 외적의 침입이 심한 하도리로 옮기면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35]. 따라서, 설촌연대는 적어도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부씨(夫氏), 고씨 및 허씨 등 일부 성씨에 의해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36].

당시의 하도의탄리는 대략 9개의 자연마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다. 즉, 부분도면에서는 포구 양쪽으로 1개씩, 별방진성의 서문쪽에 3개, 남문 좌우로 3개, 그리고 용항포 부근에 1개 마을이 나타나 있으며, 포구 주변보다는 서문과 남문 주변, 용항포(현재의 종달 마을에 위치하던 포구) 부근에 민가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상으로는 굴동, 동동 및 서동 부근[37]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로 정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별방진성의 남문과 신동(新洞) 사이에는 '남문들'이라고 하는 동서로 길게 뻗은 들(밭)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남문들'은 당시 별방진성을 중심으로 민가가 입지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준 요소라 생각할 수 있다.

『제주읍지』의 기록에는 지금의 하도리가 하도의(下道衣)로 나타나며, 제주목의 신우면(新右面)에 속하고 있었다. 원래는 상도의(上道衣)와 함께 '도의여(道衣灘)' 마을이라 불리다가 마을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17C 말에 이르러 상도리는 '웃도의여'로, 하도리는 '알도의여'로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38]. 이때의 인구와 호수를 보면, 상도의는 88호에 575명(남자: 234명, 여자: 341명)이며, 하도의는 88호에 820명(남자: 396명, 여자: 424명)으로 인구수는 하도의 마을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5) 濟州道敎育委員會, 「南槎錄」(金尙憲 編著, 1061~1062), 『耽羅文獻集』, 濟州道敎育委員會, 1976, p.117.
36) 오성찬, 「전게 논문」, p.573.
37)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1 : 5,000 지형도(1998년 수정판)에 의하면, 현재의 하도리에는 서문동, 신동, 동동, 서동, 굴동, 창흥동 및 면수동의 7개 자연마을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8) 오창명, 『제주도 마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p.392.

「정의조점」(〈표 3〉-9번)의 도면에서 정의현성 내의 읍내촌, 성밖의 읍외촌, 그리고 궁산 마을 모습이 보인다. 궁산촌은 현재의 성산읍 성읍 2리로서, 오창명에 의하면 궁산은 과거 활미 마을이었다[39]. 정의현성을 중심으로 보면, 직선거리로 북서쪽의 약 4㎞ 지점에 위치한다. 설촌과정은 분명치 않으나, 고려시대의 목마장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조선조 태종 이후에 영주산(瀛洲山) 북서쪽 언덕변(속칭, 활미(弓山)라 함)에 자연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40].

『제주읍지』상에서의 궁산 마을은 호수 23호에 인구 103명(남자: 45명, 여자: 5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8C 말까지도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1999년 인구통계에는 84세대에 261명(남자: 127명, 여자: 13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1].

「서귀조점」(〈표 3〉-12번)에는 서귀진성과 함께 동남쪽 지점(초도: 草島, 지금의 새섬) 앞에 마을이 1개 있으나, 마을 이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단 분석을 전제로 '서귀촌'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림상으로는 민가의 밀집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당시 서귀진성 주변에는 다른 민가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42], 유독 서귀포구 옆(초도 앞)의 '서귀촌' 하나만 형성된 점으로 보아, 당시는 서귀진성 주변지역이 일반 거주지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서귀촌'이 어떤 성격을 지닌 마을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다분히 서귀포 부근 해안에서 어로활동에 의존하던 몇 가구만이 정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원방고」(〈표 3〉-13번)에 나타난 고둔(羔屯) 마을은 고둔과원 근처에 형성되었던 마을로, 지금의 서귀포시 용흥동 염둔 마을을 가리킨다. 고둔과원은 현재 강정동 2012번지 지역이며[43], 조선시대부터 조성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둔과원 안에는 왕자구지(王子舊址)가 있어서, 당시에는 제주로 부임하는 목사들이 즐겨 찾는 경승지가 되고 있었다. 『남환박물』에는 고둔이 '고득종 감사(高得宗 監司)의 옛 집터'가 있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으며[44],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는 '고둔과원은 대정현 동쪽 55리에 있으니, 고득종의 농막 터인데 지금도 주춧돌과 계단이 남아있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45].

---

39) 오창명, 『전게서』, pp.426-427.
40) 오성찬, 「전게 논문」, p.599.
41) 제주도, 『1999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제주도, 1999, p.30.
42)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명유래집』, 서귀포시, 1999, p.148.
43) 서귀포시, 『전게서』, p.443.
44) 金奉玉 編譯, 『前揭書』, 1994, p.342.
45) 濟州道敎育委員會, 「耽羅志」(李元鎭 著, 1653), 『前揭書』, p.329.

부분도면 상에서는 고둔 마을이 고둔과원 동남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쪽의 일부 민가의 주위에는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또한 마을의 서쪽 방면으로는 매화나무가 울창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주읍지』에는 고둔 마을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그 대신에 강정과 도순 마을이 거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후에 고둔 마을은 강정으로 행정구역이 편제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46].

'흑로촌(黑路村)'은 「산방배작」(〈표 3〉-14번) 도면에 그려진 마을이다. 마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시의 실제 마을 이름과는 관계없이 포구 이름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필자가 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등에는 '흑로촌(黑路村)'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흑로촌'은 사계리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자연마을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데, 현재의 산방동과 토기동 중 어느 자연 마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부분도면 상에서는 민가들이 포구쪽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점으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오성찬에 의하면, 사계리는 '거문질(黑路)'이라는 옛 이름을 지니며, 1560년대에 김해 김씨의 조상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47]. 『제주읍지』에는 금물로(今勿路, 사계리의 또 다른 이름)로 기재되어 있으며, 마을의 규모는 75가구에, 인구는 436명(남자: 196명, 여자: 240명)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1780~1789년경 '흑로촌(금물로)'은 제주도내 전체 마을의 평균치(평균 호수: 76호, 평균인구: 437명/ 남자: 190명, 여자: 247명)에 가장 근접한 중간 규모의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슬점부」(〈표 3〉-19번) 도면에는 '모슬촌' 마을이 나타난다. 모슬촌은 비교적 한 장소내에 민가들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며, 마을의 위치는 모슬포구로 들어가는 길목 바로 동쪽에서 확인된다. 모슬촌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상모리(上摹里)와 하모리(下摹里)로 구분되는데, 1724~1776(영조 1~3년)년 경에는 상모슬(上摹瑟)과 하모슬(下摹瑟)로 불려지고 있었다. 부분도면 상의 모슬촌은 지금의 하모리 마을 중 돈지동(혹은 둔지동(屯地洞)이라고 함)[48]에 속한다.

현재의 상모리와 하모리에는 고부 이씨(古阜 李氏)의 자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고부 이씨의 입도조는 조선 중종때 을묘사화(1591년)의 피해자인 이세번(李世

46) 오창명, 『전게서』, p.315.
47) 오성찬, 「전게 논문」, p.595.
48) 돈지동 또는 둔지동(屯地洞)은 주로 하모리 940번지 일대를 가리킨다. 과거 '신영물' 앞에 모슬진성을 축조하여 군대가 주둔했던 것에 연유하는 지명이다(남제주군,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p.43.).

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후에 자손들이 퍼지게 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두 마을의 설촌연대를 추정한다면 대략 300여 년 전이 된다[49]. 『제주읍지』에는 상모슬 마을이 145호에 761명(남자: 349명, 여자: 412명), 하모슬 마을은 118호에 668명(남자: 302명, 여자: 36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는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이미 해안쪽과 더불어 내륙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명월조점」(〈표 3〉-21번)과 「명월시사」(〈표 3〉-22번) 도면은 비교적 넓은 지역을 포함하면서 우둔촌, 수류천촌, 협재촌, 독포촌의 4개 마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상명, 명월, 협재, 옹포 마을이다. 부분도면 상에서는 4개의 마을 중 해안가 마을인 협재 마을과 독포 마을이 비교적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협재 마을 부근에서 독포 마을 옆을 흐르는 건남천(乾南川, 瓮浦川) 주변의 논은 지금의 '명월답(明月畓)'이라 불리는 곳이며, 동쪽의 순도천(順道川, 翰林川) 주변 지역의 논은 오늘날의 지형도를 근거로 할 때, 이미 밭으로 전환되어 있다.

우둔 마을의 설촌연대는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약 380여 년 전으로 소급할 수 있으며, 최초의 거주지는 오늘날 금악지경의 갯거리 오름 서쪽에 위치하는 '참생이터'로 진주 강씨(晋州 姜氏)가 애월읍 수산리로부터 이주해 오면서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50]. 현재의 성씨분포(상명리)에서는 제주 양씨(40가구), 남양 홍씨(34가구), 진주 강씨(24가구), 제주 고씨(16가구), 경주 김씨 및 김해 김씨(16가구) 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읍지』에는 '우질둔(牛叱屯)' 마을로 표기되어 있으며, 62가구에 315명(남자: 138명, 여자: 1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수류천 마을은 김영돈의 조사보고(1977년)에 의하면, 약 500여 년 전 처음 명월진성 내에 제주 고씨가 거주하였고, 다음으로 진주 진씨(晋州 秦氏)가 명월 하동으로 이주해 왔으며, 16C 후반 경에는 군위 오씨(軍威 吳氏)가 제주목 아라리(我羅里)로부터 입주해 오면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51]. 명월진성의 남쪽에 위치하는 '남문들'이라는 지명은 명월진성의 축조와 더불어 마을의 설촌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 현재, 명월리에는 오씨(吳氏, 40가구), 강씨(姜氏, 30가구), 김씨(金氏, 29가구), 양씨(梁氏, 28가구) 및 고씨(高氏, 20가구)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제주읍지』에는 수류천 마을이 159가구에 886명(남자: 367명, 여자: 367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를 근거로 하면 18C 말에 이르

49) 오성찬, 「전게 논문」, p.584.
50) 한림읍, 『한림읍지』, 한림읍, 1999, pp.1193-1194.
51) 한림읍, 『전게서』, pp.1163-1164.

러서는 4개의 마을 중 인구증가가 가장 높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협재 마을은 협재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러 고문헌의 기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실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며, 약 750여 년 전에 설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협재 마을에서 가장 오랜 성씨인 제주 고씨(25대) 가문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남양 홍씨(南陽 洪氏, 17대), 인동 장씨(仁同 張氏, 16대) 및 전주 이씨(全州 李氏) 등이 토착 성씨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들 성씨가 많은 호수를 점하고 있다[52].

오늘날의 협재리는 금산동, 재천동, 해안동 및 중앙동으로 구분되는데, 부분도면 상의 마을은 해안동에 속하는 자연마을임을 알 수 있다. 『제주읍지』에서 협재 마을의 인구규모는 88호에 584명(남자: 271명, 여자: 317명)으로 나타난다.

독포 마을도 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설촌연대는 가장 오래된 차씨 가문(車氏, 15대)의 내력을 근거로 추산하면, 약 1549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외에 오랜 토착 성씨를 보면, 김씨(14대)와 강씨(姜氏)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씨족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53].

오늘날의 옹포리는 대화동, 중화동, 금정동의 3개 자연마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분도면 상의 자연마을은 대화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읍지』에는 독포 마을이 제주 서쪽 70리에 있으며, 민호는 86호이고 인구는 513명(남자: 231명, 여자: 282명)이라 기록되어 있다.

「애월조점」(〈표 3〉-23번)은 당시 애월진에 주둔하는 군사와 말을 점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애월 및 고내 마을, 그리고 두 마을의 포구도 상세히 묘사해 놓고 있다. 애월 마을의 경우는 포구를 사이에 두고 서쪽 지역에 네 개 지구로 마을이 나뉘어져 있으며, 고내 마을은 그림 자체가 동쪽 부분이 잘려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나, 포구주위에만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애월포구는 진성 남문 부근까지 휘감아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따라서 현재의 지형과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애월진성의 서쪽 방면은 포구의 지형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절실히 엿보인다.

애월 마을은 현재 서하동, 서상동, 동상동, 동하동으로 구분되는데, 부분도면에서는 서하동과 서상동 부근 마을이 잘 나타나 있고, 동상동 부근(속칭 숙구미)은 최초의

52) 한림읍, 『전게서』, p.1222.
53) 한림읍, 『전게서』, p.1210.

거주지로 여겨지고 있으나, 부분도면 상에서는 마을의 일부와 여러 필의 말과 목자(牧子)들을 그려 놓고 있다. 애월 마을의 설촌역사는 고려 충렬왕 26년(1300년)때부터 행정구역의 편제에 애월현(涯月縣)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약 75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조 14년(1581년)에 애월진성이 축조되면서부터는 진성과 포구 주변에도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54]. 『제주읍지』의 기록에는 41호에 352명(남자: 136명, 여자: 21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내 마을의 경우는 지금의 서동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고내 마을도 애월과 마찬가지로 고려 충렬왕 당시 현촌의 하나로 설치되었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거주 역사는 오래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의 부재로 대략 700여 년 전으로만 추정하고 있다. 1995년에 조사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고내 마을에는 김씨(170여명), 고씨(115명), 강씨(60명), 이씨(60명), 안씨(60명), 양씨(50명) 등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55]. 『제주읍지』에는 46호에 352명(남자: 123명, 여자: 15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병담범주」(〈표 3〉-25번) 도면에서는 벌랑포와 대천외리가 나타난다. 대천외리 뒤쪽으로 또 다른 마을이 보이기는 하나 그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두 마을은 모두 현재의 용담 1동을 가리키며, 자연마을로는 대천외리가 서한두기 마을, 벌랑포가 동한두기 마을이다. 대천외리라는 마을이름은 '한내밧' 혹은 '한내팟'을 한자화하여 표기한 것으로[56], 한내(大川)는 지금의 한천(漢川)을 말한다. 벌랑포는 버렁개 주변의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버렁개는 지금의 병문천(屛門川) 하류 지역을 말한다. 두 마을은 취병담(翠屛潭, 龍淵, 龍潭, 龍沼, 龍湫)[57]을 가운데 두고 벌랑포와 대천외리가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 취병담은 자연적인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분도면에서는 벌랑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천외리 마을쪽에 민가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당시는 용연과 용두암 부근의 연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용연포구 등을 이용하여 연안에서의 어로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용두암 부근 연안에서 좀녀(해녀)들의 물질작업을 하는 모습이나 대독포구에

54) 애월읍, 『읍지』, 애월읍지편찬위원회, 1997, pp.172-173.
55) 애월읍, 『전게서』, pp.314-315.
56) 오창명, 『전게서』, p.242.
57) 문무병, 「땅이름(2) : 용담동」, 제주시 · 제주문화원, 『제주시 옛 지명』, 제주시, 1996, p.256.

서 용두암 방향으로 지나가는 어선 한 척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읍지』에는 대천외리와 벌랑포에 대한 기록은 없고, 부근 마을인 대독포(大瀆浦, 현재 용담 1동에 소속)의 기록만 보인다. 대독포 마을은 52호에 341명(남자: 166명, 여자: 175명)의 규모를 가진 마을이었다.

Ⅳ. 「비양방록(飛揚放鹿)」상의 마을분포와 형성배경

「비양방록」은 1702년 10월 11일 교래(橋來)지역에서 생포한 사슴을 이듬해인 4월 28일에 비양도로 이송하여 놓아주는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지만[58], 제주목의 서문에서 명월진 부근까지의 마을과 포구 위치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비양방록」(〈표 3〉-27번)에 나타난 약 46~50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그 분포적 특징과 함께 이들 마을의 형성배경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표 4〉는 「비양방록」에 나타난 여러 마을 중에서 민가의 표시나 마을 이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을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정리한 후(46개 마을), 현재의 마을 이름(동·리별)과 비교함과 동시에 그 위치를 해발고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마을의 형성조건은 읍내촌의 경우도 대동소이하겠지만, 지형적 조건에 따른 거주지로서의 유리성, 넓은 농경지의 분포와 경작 가능성, 생활용수 취득의 편리성, 공동체적 생활공간의 확보, 다양하고 풍부한 해산물의 존재 유무, 목마장의 경영, 육지부(타지)와의 접근성 등 당시 시대적·사회적·경제적인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마을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왔는데[59], 지리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지표 중의 하나로서 해발고도를 많이 사용해 왔다.

해발고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분류기준 즉, 몇 미터를 기준점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주도가 화산활동에 의해 한라산을 정점으로 해

---

58) 김창집, 「탐라순력도 답사 기행」 『탐라순력』, 창간호, 2000, p.103.

59)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헌을 들 수가 있다.
① 泉 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② 석주명, 『제주도 수필』(제주도 총서 4), 보진재, 1968.
③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74.
④ 현용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⑤ 김석준,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2집(사회과학편), 1986.
⑥ 신행철, 「제주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서의 성격과 그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표 4〉『비양방목』 도면에 나타난 마을과 현재의 마을의 대비

번호	비양방록 상의 마을이름	현재의 마을 이름(동, 리)	마을 위치 (해발고도)	번호	비양방록 상의 마을이름	현재의 마을 이름(동, 리)	마을 위치 (해발고도)
1	大濱浦	용담 1, 2동	30m 미만	24	於音非	어음 2리	190~210m
2	道老里	이호 2동	20~50m	25	夫 面	어음 1리	110~140m
3	吾羅好	오라 1동	60~90m	26	納 邑	납 읍 리	60~100m
4	伊生里	해안동 노형동	190~210m 70~90m	27	嚴壯(浦)	구엄리 중엄리 신엄리	20m 미만 10~40m 20~45m
5	海安	해안동	190~210m	28	高內(浦)	고내리	30m 미만
6	老兄	노형동	70~90m	29	涯月(浦)	애월리	20m 미만
7	多好	도두 2동	25m 미만	30	郭支(浦)	곽지리	40m 미만
8	吾ホ弄	이호 2동	20~50m	31	皮文	명월리	50~80m
9	水近(浦)	용담 3동	20m 미만	32	道內山	봉성리	60~70m
10	坪代	도평동	30~60m	33	召ㅁ貴林	상대리	25~40m
11	泥浦(道頭)	도두 2동	25m 미만	34	牛屯	상명리	140~150m
12	可沙(浦)	이호 1동	20m 미만	35	立石	대림리	20~40m
13	今勿德	유수암리	210~250m	36	大林	대림리	20~40m
14	有信洞	광령 2리	200~220m	37	皈德(浦)	귀덕리	10m 미만
15	光令	광령 1리	150~180m	38	牛池(浦)	귀덕 2리	20~30m
16	水淨	외도동	40m 미만	39	潛水浦	수원리	15m 미만
17	都近川(浦)	외도동	40m 미만	40	明月	명월리	50~80m
18	流水岩	유수암리	210~250m	41	堂旨	저지리	130~140m
19	長田	장전리	120~130m	42	造乎勿	조수 1리	60~70m
20	古城	고성리	120~130m	43	水流川	명월리	50~80m
21	可樂	상가리 하가리	80~100m 55~75m	44	獨浦	옹포리	10m 미만
22	水山	수산리	60~70m	45	俠才(浦)	협재리	10m 미만
23	君郎(浦)	하귀 1리	10m 미만	46	盃令(浦)	금능리	15m 미만

(1) 마을의 기재는 제주읍성의 서문쪽에서 명월진 쪽으로 순차적으로 하였음.
(2) 해안가에 위치하는 마을인 경우(특히, 끝의 괄호안에 '포(浦)'가 들어가는 마을), 민가는 보이나 마을 이름이 없을 때는 포구 이름으로 대치하여 정리하였음.
(3) 해발고도는 마을의 남북범위를 토대로 설정한 것임.
(자료 : 『탐라순력도』「비양방록」의 판독)
(참고문헌 :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안까지의 모든 지역이 중앙부에 위치한 한라산체의 지형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생활환경적 기반도 결정되었다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 해발고도가 마을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이나 최근 지역개발과 보존을 전제로 한 연구[60]에서는 주로 0~200m 이하를 해안 지역, 200~600m 사이를 중산간 지역, 600m 이상을 산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시점에서 제주도의 지역 전체를 구분하는 지표로서는 분명히 유효한 근거가 되지만, 과거의 마을을 구분하고 성격을 논의하는 상황적 지표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17~18C와 같이 교통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적 배경하에서는 마을과 마을간의 생활적 의존도가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마을을 구심점으로 하는 공동체적 생활에 중심이 놓여져 있었음을 전제할 때, 기존의 분류기준은 너무나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대다수의 마을을 동일한 성격으로 취급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거에 마을을 잇는 관도(官道)나 해안(어로활동 및 용천수의 이용)에의 의존도 및 농경활동(농경지 확보, 화전경작)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해발고도의 구분기준을 현용준이 사용했던 100m와 300m를 기준으로[61], 100m 미만을 해안마을, 100m 이상~300m 이하를 중산간 마을, 300m 이상을 산간마을로 구분하여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마을들의 성격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상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비양방록」도면상의 마을을 구분하면, 이생리(해안동), 해안, 금물덕, 유신동, 광령, 유수암, 장전, 고성, 어음비, 부면, 우둔, 당지의 12개 마을(26%)이 중산간 마을에 속하며, 대독포, 도노리 오라호 등 나머지 34개 마을(74%)은 해안 마을에 속하게 된다. 물론, 해발고도 상으로 보면 산간 마을은 전혀 없는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할 때, 18C의 한라산 북서지역에는 중산간 지역보다 해안 지역이 거주지로서의 선호도가 높았던 동시에 상주인구도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사람들이 수산자원(해산물, 용천수 등)에 의존하려는 심리가 높게 작용한 결과인 동시에, 시대적으로는 외구나 외적의 침입도 비교적 적었다는 사회적 조건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지형적 조건에서는 당시로서도 100m 미만의 해안가의 평지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훨씬 좋은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60) 제주도,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국토개발연구원 용역의뢰 조사보고서), 제주도, 1997.

61) 현용준은 해발고도 100m와 300m를 기준으로 해안마을, 중산간마을 및 산간마을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m와 300m 사이의 마을에 대한 설정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특히, 17C말에서 18C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제주목의 마을형성이 동부지역보다 서부지역이 우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정확한 마을 이름이 나타나는 『제주읍지』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제주목은 중면, 좌면, 신우면, 구우면의 4개 면(面)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부지역인 좌면에는 19개 마을이 형성되었던 데 반해, 서부지역의 신우면은 22개, 구우면은 13개로, 합계 35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즉, 오늘날의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제주시 지역을 제외한 한라산 북서지역은 3개의 읍면(애월읍, 한림읍 및 한경면)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속하는 법정마을은 애월읍이 26개, 한림읍이 26개, 한경면이 15개로 합계 67개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수는 54,487명(199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남자: 28,862명, 여자: 28,625명)[62]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한라산 북동지역은 2개의 읍(조천읍, 구좌읍)으로 구성되며, 법정마을은 조천읍이 12개, 구좌읍이 13개, 우도면이 4개로 합계 29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인구수는 39,993명(자료 위와 동일, 남자: 19,811명, 여자: 20,182명)으로 집계된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북동과 북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 차례의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모순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제주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상황적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라산 북서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마을들이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오홍석은 제주도 마을(촌락)의 입지요인을 음료수, 지형, 풍수설, 외적방어, 동족집단의 관습, 교통(특히, 관도)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63]. 그리고 일본인 지리학자 마스다(桝田)는 1930년대 제주도의 취락에 대한 특성을 다루면서 용천수, 동족집단의 관성, 농업적 유리성, 교통의 발달 등이 마을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 동시에,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마을들이 내륙과 해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인자로서 해석하고 있다[64]. 따라서 기존 연구에 토대를 두면, 제주도의 마을입지와 형성에는 이상에서 지적된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먼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시대를 달리하는 고려시대 현촌(縣村)의 구조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고려시대 14개의 현촌 중에서 귀일, 고내, 애월, 곽지, 귀덕, 명월, 차귀, 신촌, 함덕, 김녕(이외 산남지역에 토

62)) 제주도, 『전게서』, pp.23-26.
63)) 오홍석, 「전게 논문」, pp.1-143.
64)) 桝田一二, 「濟州島の集落」『桝田一二地理學論文集』, 桝田一二地理學論文集刊行會, 1976, pp.120-144.

산, 호촌, 홍로, 예래가 있음)이 한라산 북쪽에 위치하며, 이들 중 귀일을 비롯한 7개의 현촌이 제주도의 서부지역에, 그리고 신촌을 포함한 3개의 현촌이 동부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65].

한편, 최근 제주도의 종합적 연구에 의하면, 동서지역에 대한 토양의 질적 차이가 현격히 다르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66]. 제주도의 토양은 '북서해안 암갈색 화산회토대', '중산간 남동해안 농암갈색 화산회토대', '동부내륙 흑색 화산회토대', 및 '산악 농암갈색 화산회토대'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중 화학비료나 농약이 개발·보급되기 이전의 전통적 사회에서는 '북서해안 암갈색 화산회토대'에서만 제주도민들의 주식이었던 보리와 조의 재배가 비교적 무난하게 행해졌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서해안 암갈색 화산회토대'에는 「비양방록」도면에 나타난 해안 마을과 일부 중산간 마을들이 포함되고 있다. 나머지 세 개의 토양대는 산성도가 강하고 미성숙해서 일부지역의 경우 조(粟)의 재배가 가능했지만, 보리의 재배는 어려웠고 주로 기장(黍)이 재배되었다. 특히, 가장 생산력이 높은 '북서해안 암갈색 화산회토대' 지대는 과거의 마을 분포와도 일치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67], 17~18C에도 한라산 북서지역이 마을이 형성·확산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V. 맺 음 말

본고에서는 『탐라순력도』를 분석자료로 삼아, 「한라장촉」에 대한 고지도로서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마을의 구성실태와 분포적 특징 및 형성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마을의 실태분석에 중점을 둔 배경은 미력하나마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거주환경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탐라순력도』 상의 「한라장촉」은 현존하는 제주의 고지도 중 제작시기와 저자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적

65) 유철인, 「마을」 『제주도지』(제1권), 제주도, 1993, pp.1253-1271.
66) 제주도, 『전게서』(국토개발연구원 용역의뢰 조사보고서), p.104.
67)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해민정신 개정 증보판), 파피루스, 1998, p.249.

으로 보면, 「한라장촉」은 비교적 정확하게 제작된 지도라 할 수 있으나, 제주도의 동서지역의 지형적 윤곽이나 한라산 남쪽지역(정의현 및 대정현)의 공간적 범위는 북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고 왜곡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저자의 지도제작 의도와 변방이라는 지역특성에 의해, 여러 가지 지리적 요소 중 특히 해안선(포구의 위치), 산악(특히, 한라산 백록담, 성산일출봉, 산방산), 읍성·진성, 연대·봉수대, 목장, 제주 주변 도서지역과 일부 외국지역이 강조된 특징을 띠고 있다.

둘째로, 「한라장촉」에 표현된 지리적 요소를 인문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로 분류했을 때, 인문적 요소로는 읍성, 진성, 연대, 봉수대, 목장, 마을 등 약 15개로 집약되며, 자연적 요소로서는 산악(오름), 하천, 삼림(숲), 도서 등 약 7개로 집약할 수 있다.

셋째로, 「한라장촉」을 제외한 『탐라순력도』의 부분도면에 나타난 마을은 크게 읍내촌과 읍외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읍내촌은 조선시대 이후 제주도가 1목 2현이란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주읍성, 정의현성 및 대정현성 내의 지구가 구심점이 돼 왔다. 결국, 18C초 제주목의 읍내촌은 제주도의 중심부인 만큼 인구의 집중도도 높아 1도, 2도, 3도라는 세 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우는 한 개의 읍내촌만이 형성되어 있었다.

넷째로, 읍외촌은 기본적으로 읍내촌의 성장과 더불어 인구증가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생활기반을 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거주지로서의 유리성, 넓은 농경지의 분포와 경작 가능성, 생활용수 취득의 편리성, 공동체적 생활공간의 확보,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자원 존재, 목마장의 경영, 육지부(반도부)와의 접근성(교통) 등 당시의 시대적·사회적·경제적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탐라순력도』상에서 마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면은 모두 23개 도면이다. 이들 중 민가의 분포를 통해 가장 먼저 마을의 형태를 보이는 도면은 「산장구마(山場驅馬)」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마을을 보이는 도면은 「비양방록(飛揚放鹿)」으로 약 46~50개 정도의 마을로 추산된다. 이처럼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배경은 마을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다가, 마을 이름과 포구 이름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현시점에서는 일일이 대조하여 판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비양방록(飛揚放鹿)」도면은 제주목의 서문지점에서 명월진(한림읍 명월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마을과 포구의 분포실태를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제주도 북서지역의 마을형성과 확산과정 혹은 포구와 마을과의 관련성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8C 초에도 해발 200m 이내의 해안 또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점은 『탐라순력도』의 제작 이전과 그 이후의 제주도 마을형성과 확산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지리적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